

목포교육청, '2023 겨울방학 탄소중립 환경교실' 프로그램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 생활 속에서 실천 의지 키우고자 마련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과 함께 탄소중립실천 의지 다지는 시간 가져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목포창의융합교육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56명을 대상으로 「2023. 겨울방학 탄소중립 환경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이번 겨울방학 탄소중립 환경교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탄소중립의 의미와 실천 방법들을 우리 지역의 숲과 바다 생물의 다양성을 통해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 의지를 키우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환경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안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해양생물들의 먹이사슬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의 서식지가 오염되고 있는 이유를 찾는 활동을 했다. 또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둠별 탐구활동을 통해 찾아보고, 바다 속 버려진 유리조각을 모아 보석 목걸이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과 함께 탄소중립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교실 교육을 담당한 다도해해상국립

공원 박휘성 해설사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참여해 준 학생들을 칭찬하며, "이번 환경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성 교육장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교실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교육청, '겨울방학 영어캠프' 개최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무안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겨울캠프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캠프의 장을 마련하여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캠프 참가 학생 중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짐을 싸는 활동부터 비행기 체크인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김선지 교육장은 "무안외국어체험센터가 글로벌교육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백서로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했던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사업 학교 28교의 사례를 담은 백서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 두 번째 이야기'를 15일 발간했다.

'다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는 '우리가 꿈꾸는 교육적 상상'이 다 되는 교실, 학교와 지역사

회를 다 품은 학교'라는 뜻이다.

백서에는 전남형 공간혁신 7개 유형인 △ 놀이공간 △ 배움공간 △ 생활공간 △ 창의공간 △ 생태공간 △ 마을연계공간 △ 교육지원공간 등의 다양한 사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한 공간혁신 워크숍,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과정, 소감 및 제언 등이 실려 있어 미래교육환경조성 사업의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백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전남 관내 초·중·고에 보내져 전남의 공간혁신 사업을 알리

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3년도 학교공간혁신(영역단위) 사업 대상 학교로 초11교, 중6교, 고2교, 특2교 총 21교를 선정해 추진중이며, 오는 3월 20교를 추가 선정해 총 183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백서 발간을 통해 학교공간혁신의 홍보와 희망 학교에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과정과 연결된 삶과 배움이 있는 전남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화순공공도서관, 재능기부 독서프로그램 운영

화순공공도서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유아 및 초등 저학년층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는 토요일」을 운영한다.

「그림책 읽어주는 토요일」은 그림책 독서회 '다독다독' 회원들의 재능기부 독서프로그램으로 매월 선정된 그림책을 함께 읽고 관련 독후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책놀이 활동이다.

그림책 독서회 '다독다독' 회원은 "재미있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러 책놀이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림책 읽어주는 토요일」 참가 신청은 매월 마지막 주 1주간 어린이자료실(1층)에서 선착순(10명)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영암교육청 학교정보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PC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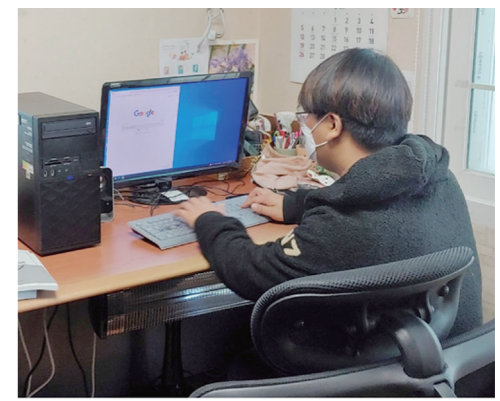
학생들의 정보 검색·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추진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에 조립 PC 12대를 영암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는 정보업무 지원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과 정보화기기 운영 최적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PC 나눔은 PC 교체로 발생한 부품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정보 검색,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들의 PC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번 교육청 지원으로 아이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